

## 노무현 대통령 토니 블레어 총리 공동기자회견

우선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영국을 국민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,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와 블레어 총리 내외, 그리고 영국 국민 여러분의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국제안보 및 범세계적 이슈까지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.

본인과 블레어 총리는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양국관계,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, 이라크 문제를 비롯한 국제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이번 국민방문에서 양국관계가 더욱 성숙해졌음을 확인하고, 여러 분야에서 상호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가일층 심화시키는 동시에, 국제안보 및 범세계적 이슈까지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. 특히, 이번 회담에서 블레어 총리와 우의와 유대를 돈독히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우리 두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으며, 이를 위해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하며,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긴

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블레어 총리는 우리의 평화·번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영국이 건설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.

**한-영 첨단기술 파트너십을 구축, 공동연구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산업 및 투자협력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.**

우리 두 정상은 120년 역사의 양국관계가 교역 및 투자 등 실질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심화·확대되고 있음을 기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우리 두 정상은 또 생명공학, IT, 창조산업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, 한-영 첨단기술 파트너십을 구축, 공동연구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산업 및 투자협력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.

한편,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·영 양국은 조속한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두 나라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였고,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

끝으로 본인은 두 나라 관계발전에 대한 블레어 총리의 관심과 열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며, 오늘 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긴밀한 동반자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.